

-(느)냐?/-니?

해라체 의문문

-(느)냐에 대응하는 의문형입니다. 두 가지가 있으며 느낌이 다릅니다. 니는 다정하고, 냐는 통명스럽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부드러움, 모든 어간	-니?	가다 → 가니?
ㄹ 어간 + -니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니?
동사, 통명스러움	-냐?	가다 → 가느냐?
형용사, 통명스러움	-(으)냐?	좋다 → 좋으냐?
과거	-았/었니? / -았/었냐?	갔니?
일상 반말	-아/어?	어디 가?

■ 언제 쓰나요

-니?는 어떤 어간에든 붙으며 ㄹ은 탈락합니다: 가니, 먹니, 만드니. 부드럽게 들리며, 어른이 아이에게, 선생님이 학생에게 흔히 씁니다.

-(느)냐?는 -(느)냐처럼 품사에 따라 나뉩니다. 동사는 -냐, 형용사는 -(으)냐를 씁니다. 말로 하면 통명스럽고 따지는 듯이 들릴 수 있어서, 글이나 간접 의문문에서 훨씬 자연스럽습니다.

평범한 반말 대화에서는 어느 쪽도 기본형이 아닙니다. 친구끼리는 -아/어?로 묻습니다. 어디 가니?가 아니라 어디 가?라고 합니다. 여기의 두 형태가 중요한 것은 주로 간접 의문문이 -(으)냐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.

두 형태 모두윗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. 선생님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-아요?나 -습니까?로 묻습니다.

■ 예문

- 1 밥은 먹었니?
- 2 오늘 학교에 가니?
- 3 지금 뭐 만드니?
- 4 몸은 좀 괜찮으냐?
- 5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?
- 6 요즘 잘 지내니?

■ 비교

-아/어?

친구끼리 실제로 쓰는 것은 이것입니다. -니와 -냐는 하나는 부드럽고 하나는 거친, 특별한 느낌이 있는 형태로, 어느 쪽도 중립적인 반말 의문문이 아닙니다.

어디 가? (중립적 반말) / 어디 가니? (부드럽게, 아이에게)

-니 vs -냐

문법적 기능은 같고 느낌은 반대입니다. -니는 질문을 부드럽게 하고, -냐는 딱딱하게 만들어 따지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.

밥 먹었니? (다정함) / 밥 먹었냐? (통명스러움)

간접 의문문

-(으)냐를 익혀야 하는 실용적인 이유는, 원래 질문의 어미가 무엇이든 간접 의문문이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.

어디 가? →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.

■ 주의

✗ 선생님, 지금 어디 가니?

○ 선생님, 지금 어디 가세요?

이 형태들은 아랫사람이나 동등한 사람에게만 씁니다. 선생님에게는 부드러운 -니도 어울리지 않습니다.

✗ 지금 뭐 만드니?

○ 지금 뭐 만드니?

ㄹ 받침 어간은 -니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 -(으)세요, -버니다 앞에서와 같습니다.

✗ 날씨가 좋느냐?

○ 날씨가 좋으냐?

-느냐는 동사에 쓰고, 형용사는 -(으)냐를 씁니다. -(느)냐다, -는데와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.